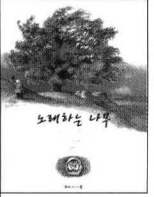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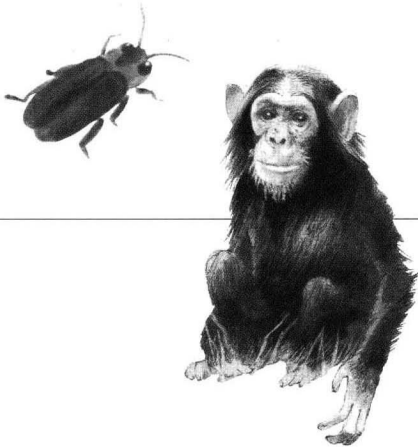


《아기 침팬지 리키와 복슬 개 헨리》
 제인 구달 지음 | 알렌 막스 그림 |
 강현정 옮김 | 한솔교육 | 28쪽 |
 값 8,000원



《노래하는 나무》
 베르나르 클라벨 지음 |
 크리스티안 하인리히 그림 |
 전채린 옮김 | 두레아이들 | 120쪽 |
 값 8,800원



한 해를 보내는 12월.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구세군 냄비 속에 마음을 전한 아이들은 곧 체온이 몇 도씩 올라가는 기분에 추위도 잊을 겁니다. 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다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에게 안부를 물을 차례입니다. 가느다란 뼈대만 드러낸 나무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표정은 볼 수 없지만 인간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기다리는 귀한 생명들의 사연을 들려주면서 살아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줄 책들을 소개합니다.

엄마 잃은 슬픔은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지요. 《아기 침팬지 리키와 복슬 개 헨리》의 주인공 리키는 사냥꾼으로부터 엄마를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리키를 우리에게 가뉘 팔아넘기려는 못된 사냥꾼이 있는가 하면 리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착한 아저씨도 계십니다.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아저씨는 리키를 집으로 데리고 가 음식을 주고 상처도 치료해 주지요. 아저씨도 아저씨지만 아저씨네 집에 살던 개 헨리는 엄마 잃은 상처를 간직한 리키를 보살펴주는 소중한 친구가 돼줍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의 삶이 다르듯 동물들 삶에도 고유한 영역이 있겠지요. 이 책은 리키가 자신을 닮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리키를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는 결말을 택합니다. 인간과는 분명 다르지만 인간과 닮은 동물 친구들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이야기로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의 글입니다.

《노래하는 나무》에도 동물들을 거두고 보살피면서도 그들에게 언제든 떠날 자유를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연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중 <푸른 오리네 집>의 시몽 할아버지는 숲속 동식물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늪은 미치광이’로 불리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치광이라 불릴 만큼 이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와 시냇물, 짐승들을 집에 데리고 와 상처를 치료해 주고 보살피주며 남다른 선행을 실천합니다.

한편 표제작인 <노래하는 나무>에는 죽은 단풍나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는 나무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계신가 봅니다. 인간이 죽어서도 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듯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할 나무들의 마음을 읽고 단풍나무가 노래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돕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동식물들과 대화하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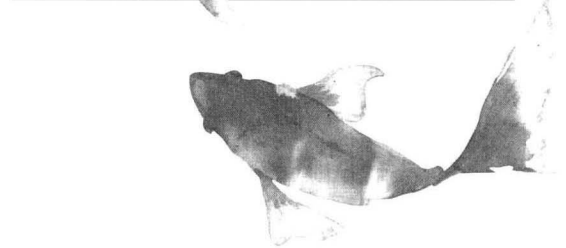
른들의 모습 속에서 주변 사물과 생명체에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는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집니다. 더러운 개똥도 치우고, 푹푹 쉬어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도 치우는 친구. 이런 친구가 다가온다면 잔뜩 얼굴을 찌푸릴건가요? 《내 꿈은 환경 지킴이》는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해온 장원이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재미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보호에 팔을 걷어 붙이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장원이의 환경사랑 에피소드를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호수 밑바닥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야겠다고 아빠에게 잠수복을 사달라고 조르는 장원이는 지각까지 하면서 잠자리채로 쓰레기를 치웁니다. 가끔 짝꿍 윤지처럼 더러운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냄새난다”며 싫은 티를 내지만 장원이는 당당하게 내 꿈은 환경운동가라고 말하며 주변 환경, 생명체들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기 정화를 위해 창포꽃을 심고, 구더기들이 죽은 병아리 노랑이를 먹는 걸 보며 노랑이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꿈꾸는 한 아이의 대견스러운 모습들. 챕터마다 장원이의 환경사랑 활약상이 소개돼 있습니다.

《반디아, 만나서 반가워》는 판타지 형식을 가미한 환경동화.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사랑의 발견 반딧불이 축제’에 참가한 은호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반디라는 친구를 만나 반딧불이들이 모여 사는 동굴까지 찾아간 은호는 신비한 동굴 속에서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픽션 형식으로 반디아와 은호의 이야기를 엮고 있지만 그 곁에 반디가 환경오염 측정에 유용할 만큼 깨끗한 곳에 사는 곤충이라는 과학적 지식도 알려주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경고하는 메시지도 함께 내놓습니다. 반디 홀로그램을 통해 은호네 부모님이 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셨는지 그 비밀을 풀어주는 후반부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우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출판계에서도 인세 나눔 운동 사례가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들 하지만 나눔 ‘마음’ 조차 없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반디, 침팬지와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모르지만 환경 지킴이 장원이처럼 늘 지나가는 동네 호숫가를 유심히 한 번 더 바라보고 그곳 생명들을 위해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 펼쳐 읽으며 “다시, 생명을 생각하자”는 제안도 해주세요. **김정연** 김정연 기자

	《내 꿈은 환경 지킴이》 홍윤희 지음 김경희 그림 두산동아 128쪽 값 7,500원
	《반디아, 만나서 반가워》 이봉 글 어순영 그림 영림카디널 120쪽 값 7,500원





《공주의 발》

아네스 드자르트 지음 | 조현실 옮김 | 신민재 그림 | 문학과지성사 | 83쪽 | 값 8,000원



《별나라에서 온 공주》

김재홍 글·그림 | 마루벌 | 40쪽 | 값 8,800원



여드름 송송 난 사춘기 아이들의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처럼 큰 눈, 새하얀 피부, 가느다란 손가락, 찰랑거리는 머릿결의 소유자. 안 봐도 뻔하지요. 청순가련형의 공주가 등장했을 때 환상의 막을 덧씌운 사춘기 소년들의 눈에선 '번쩍' 하고 불꽃이 튀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소년들이 환상열차에서 하차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순가련형 공주가 의외의 실망스런 행동을 보여줄 때! 소년들은 잔뜩 찌푸리며 말합니다. “이런, 저 예쁜 아이도 트림을 하고, 방귀를 끼는구나, 저 예쁜 손으로 코까지 파고 있군. 이를 어찌지.” 그러나 《공주의 발》은 이런 실망감을 느끼며 여자를 향한 환상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여성상을 발견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이반의 ‘공주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발 관리사 모리세트 할머니. 사실 이반은 할머니의 조수가 되라는 엄마의 충고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큼 할머니가 싫습니다. 할머니는 무뚝뚝해 보이고, 치과 냄새와 양호실 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무시무시한 기구를 만지며 지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소년은 그곳에서 발이 예쁜 공주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달콤한 희망 하나를 품고 조수로 일합니다. 이 책은 변화와 발견, 깨달음이라는 완결된 이야기 구조의 틀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반은 자신의 입으로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요. 징그럽고 냄새도 나는 손님들의 발을 숨씨 있게 관리해 주는 할머니의 활기 넘치는 삶을 어느 순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반은 화가를 사랑했지만 부모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 관리사가 됐다는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그분 삶의 나이테를 바라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반 눈에 덧씌워진 환상의 막이 사라지지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여성상, 생동감 넘치는 여성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반의 깨달음에 대한 선물인 듯 결말에선 이반에게 어울리는 생기발랄 귀여운 공주가 나타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회생활을 해보려는 엄마, 힘든 일이지만 손님들과 함께하는 보람을 느끼는 할머니 등 생동감 넘치는 여성 캐릭터들이 소년의 어리석은 환상을 깨주는 멋진 공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별나라에서 온 공주》는 《공주의 발》을 읽기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책입니다. 《공주의 발》에 인형 같은 공주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남자아이가 있다면 이 책에는 스스로 자신이 별나라에서 온 공주가 아닐까 착각하는 여자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 별나라 공주가 어느 날 가출을 시도합니다. 이유는 언니와 남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지요. 그러나 별나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어린 공주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신하들이 아닌 아빠입니다. 매우 작은 일에도 상처받으며 “왜 언니만 예뻐할까?” 고민하는 아이들 심리에 깊숙이 빠져보는 이야기. 결말에서 “이 초콜릿, 언니 먹어”라며 슬쩍 화해를 건네는 아이의 귀여운 마음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펼쳐놓고 “넌 우리집의 공주야!”라고 적당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김청연 기자

